

<宗 訓>

忠孝·德禮·勤謹·恭儉

나리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에
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중하며
부자랑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깊은
삶을 살자이다.

淸州韓氏報

(우 : 110-719)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602호

홈페이지 : 청주한씨 중앙종친회(www.cheongjuhan.net)

☎ 720-6370~1 FAX : 720-9215

發行人 韓甲洙
編輯人兼 韓東元
主幹
印刷人 韓範東
한영인쇄사 041-563-7474

「인터넷대동족보」3월 말로 일단 마무리 대부분 종파들의 보정작업이 끝남에 따라

중앙종친회의 「인터넷대동족보」 편찬사업은 3월 말까지 보정작업을 끝내고 획(劃)을 긋는 의미에서 일단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난 3월 13일 오후 2시 중앙회 회의실에서 甲洙중앙회장 주재 하에 열린 「인터넷대동족보」 편찬팀 회의는 이와 같은 방침을 확인한 다음 각 종종의 보정작업 실태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점검, 특히 일부 종종의 미진한 보정작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와병 중이던 陽命상임고문이 건강한 모습으로 모처럼 참석, 활기가 넘쳤으며, 駿錫편찬소위원장, 基虎도유사, 成龍부회장, 星變부회장, 相容부유사가 참석했다.

甲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종종을 찾아 전국을 순회하면서 보정작업을 독려해온 편찬팀의 노고를 치하하고 “보정이 미진한 극히 일부의 종종에 대해서는 보정작업이 마무리되는 3월 말까지 계속 노력하여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甲洙회장은 이어 보책(譜冊) 밭간문제에 대해 “보책 밭간은, 「인터넷대동족보」 편찬사업과 함께 나의 회장 재임 중 약속이기 때문에 가급적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인터넷대동족보」가 일단 마무리된 다음 「제7교청주한씨대동족보편찬위원회」(가칭) 같은 기구를 만들어 이 기구에서



인터넷 족보 편찬팀 회의에서 마무리 작업을 점검하고 있다.

보책 밭간문제에 대한 모든 전권을 가지고 오는 12월 말까지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甲洙회장은 또한 시조묘 주변의 정화문제에 대해서도 언급, “시조묘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과 울타리가 축조된지 30여년이 지나 노후화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아 보수할 필요가 있으며, 4위단 묘비도 새로 교체할 계획”이

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사전검토작업을 하도록 사무처에 지시했다.

한편 「인터넷대동족보」 편찬팀은 지난 2월 한 달 동안 각 종종 대표를 찾아방을 순회하거나 종종 대표를 중앙회로 초치, 조속한 보정작업을 독려한 결과 대부분의 종종으로부터 호응을 받아냈다.

相容부유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말까지 수단접수를 마감한 후 2014년에도 수단 신청이 들어와 1647명이 접수되어 수단접수 총 인원은 11만4,600명이며 앞으로도 약 3만2,500명의 수단이 신청될 것으로 예측되어 수단 신청 총 인원은 1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2014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최 공고

- ▲ 일 시 : 2014년 4월 9일 (수) 오전 11시
- ▲ 장 소 : 뮤지엄웨딩홀 (전쟁기념관 역내)
전철 : 삼각지역 4호선 1번, 6호선 12번 출구
버스 : 삼각지역 하차 (☎ 02-709-3004)
- ▲ 안 건 (보고 및 심의)
 - 2013년도 주요사업실적 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
 - 인터넷족보 구축사업 현황 보고 및 대동족보 밭간에 관한 의견
 - 기타 종사에 관한 사항
- ▲ 회 비 : 30,000원
※ 행사준비를 위해 4월 4일(금)까지 참석 여부 통지를 바라오며 (☎ 02-720-6370) 종사운영을 위해 소정의 연회비를 조속한 시일 내 납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3월 19일
청주한씨중앙종친회 회장 韓 甲 洙

2014년도 장학증서 수여식 공고

1. 일 시 : 2014년 5월 10일 (토) 오전 11시
2. 장 소 : 시조부군 묘전 (충북 청원군 남일면 가산리)
3. 참석범위 : 선발된 장학생 및 국내외 거주 종원
4. 식전행사 : 시조부군 묘전에서 고유제(告由祭)
5. 참고사항 : 장학증서 및 장학금은 반드시 장학생 본인이 참석하여 직접 수령해야하며 불참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연락처 : 02-720-6370~1 (중앙종친회)

2013년 3월 일

(재)청한장학회 이사장 韓 甲 洙
청한장학후원회 회장 韓 陽 命

난곡로 확장 · 포장공사 4월 초 착공 확장 · 신설된 난곡교는 4월 중 개통

공사비 56억 원, 중앙회의 대외적 노력으로 당초 예산보다 31억 원 증액
甲洙회장 “완공되면 「淸韓閣」 더 돋보이고 대형버스 출입 자유로울 것”

‘49번 지방도’ 와 연결된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 마을 입구에서 시조 위양공의 탄생유지(遺址)인 「淸韓閣」 까지의 약 2km에 이르는 ‘난곡로’ 확장 및 포장공사가 당초 예정(2013년 11월) 보다는 지연되었지만 공사가 불 가능했던 동절기를 넘겨 오는 4월 초 이전에는 착공할 예정이라고 영동군 건설교통과 이석영씨가 지난 3월 13일 밝혔다.

또한 난곡로 조입과 직각으로 연결되는 난곡교도 구 난곡교를 허물고 바로 아래쪽으로 폭 11m, 길이 27m의 새로운 난곡교로 완공되어 오는 4월 중에 ‘49번 지방도’ 와 연결 · 개통되고 7월 말 까지는 구 난곡교의 철거 등 주변 정리까지 포함하여 난곡교와 관련된 모든 공사 일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공사현장 책임자가 밝혔다.

甲洙중앙회장은 두 공사의 진척상황을 보고 받은 후 “난곡로와 난곡교 확장 · 포장공사가 완공되면 「淸韓閣」 앞까지 대형버스의 입 · 출입이 쉬워지고, 마주치는 차량들의 왕복에도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난곡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성취됨으로서 우리 청주한씨와 난곡리 주민들 간의 유대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고 발전될 것이며, 난곡리 마을 안에 위치한 「淸韓閣」 보존 ·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淸韓閣」도 한층 더 돋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공사 중 난곡리 진입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는 당초 정부예산 지원 10억 원, 난곡교 확장 및 보수공사는 충북도에서 15억원의 예산이 각각 책정되어 총 2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甲洙중앙회장이 영동군 정구복 군수, 충청북도 이시종지사, 그리고 중앙 정부의 안정행정부 장관과 꾸준히 협의한 보람이 있어 총공사비가 31억원이 증액된 56억원으로 들어났다. 사업 별로 살펴보면, 난곡교 확장 및 보수 공사는 충북도에서 11억원을 증액 배정하여 26억원으로 늘었고, 난곡로 확



사진 위 : 난곡교와 바로 연결되는 난곡로 조입. 사진 아래 : 4월 개통을 앞두고 확장준공된 난곡교

장 및 포장공사비는 영동군 예산 20억 원이 증액 배정되어 30억원으로 늘어났다.

**난곡로는 폭 8m에 높이도 1m 올리고
난곡교는 도로 직선화 따라 새로 건설**

난곡로 확장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충북 영공군의 金英煥건설교통과장은 지난 해 9월 난곡로는 8m 폭으로 확장

하되 2차선에 해당하는 폭 6.5m만 포장하고 길 양쪽으로는 각각 75cm 폭의 포장되지 않은 노견(路肩 · 길 가장자리)을 두기로 했으며, 바로 옆을 흐르는 난곡천의 수량(水量)과 수류(水流) 등을 감안하여 폭 확장과 함께 길 높이도 현재보다 1m 높게 성토(盛土)하여 조성(造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충북도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49번 지방도’ 상의 난곡교 신설공

사는 급커브로 곡선화되어있는 도로를 직선화하면서 기존의 난곡교를 허물고 난곡천을 기준하여 아래쪽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난곡교를 건설했다. 지금 까지 2차선인 난곡교는 난곡로 입구와 직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난곡교에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하는 대형버스 등의 난곡로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알 림

- 시조탄생유지 淸韓閣은, 주말(週末)에는 삼문(三門)이 열려있으나 주중(週中)에는 내부 시설물의 보안상 관계로 잠겨져 있습니다.
- 따라서 淸韓閣을 주중(週中)에 참배, 침관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전날 저녁 때나 당일 이른 아침 <043-742-4982>로 현지 관리인 김승수씨에게 연락을 취해야 삼문을 열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시조탄생유지 淸韓閣 전경

중진고문 및 편찬팀 회장단 신년모임

甲洙중앙회장 초청…하림각에서

〈참석자〉 : 陽命상임고문, 昇洙고문(전 국무총리), 明淑고문(전 국무총리), 勝憲고문(전 감사원장), 和甲고문(한반도평화재단 총재), 陽洙고문(전 충남지사), 民求고문(전 합참의장), 榮實고문(전 숙명여대 총장), 東宙고문(육군3군부사령관), 駿錫서울시종친회장, 基虎고문, 吉洙서원군파회장, 成龍편찬위원.

중앙종친회 甲洙회장은 지난 2월 20일 오전 11시 昇洙전 국무총리 등 정·관계 및 각계각층에서 한문을 빛낸 중진고문들과 인터넷대동족보 편찬팀 회장들을 서울 종로 부암동 소재 하림각으로 초청. 신년인사회를 베풀었다.

신년인사회는 먼저 甲洙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星變부회장의 주요종사 및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陽命상임고문의 건배사 선창에 따라 새해를 축복하고 청주한문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하는 축배를 든 후 덕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모임에는 陽命상임고문, 昇洙고문(전 국무총리), 明淑고문(전 국무총리), 勝憲고문(전 감사원장), 和甲고문(한반도평화재단 총재), 陽洙고문(전 충남지사), 民求고문(전 합참의장·예비역 육군대장), 榮實고문(전 숙명여대 총장), 東宙고문(육군3군부사령관·육군중장), 駿錫서울시종친회장, 基虎고문, 吉洙서원군파회장, 成龍편찬위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甲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5년 동안의 재임 기간 중 계획했던 종사(宗事)들이 잘 마무리되었거나 순조롭게 진행되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며,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고 밀하고 “10년을 끌어온 인터넷족보사업도 3월 말까지는 보정(補正)작업을 끝내고 일단 마무리할 예정이며 모바일족보도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甲洙회장은 이어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의 임기 중에는 (재)청한장학회의 장학기금을 현재의 25억원에서 35억원으로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장학사업을 한다고 하면 1년에 최소 1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야하는데 현재의 장학기금 25억원으로는 1년에 1억원의 금융이자 수익이 어려우며 최소한 35억원의 기금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星變부회장이 보고한 주요종사 및 현안사업은 다음과 같다.

I. 시조탄생유지 성역화사업

1. 청한각(淸韓閣) 건립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 – 부지 1,029m²=312평)

1) 준공 : 2011년 9월

2) 주요사항

① 청한각 건립사업 (10억원)

시조묘역 정화사업 및 세일재 중보수사업 병행

② 난곡천 복개사업 (10억원)

2. 난곡교 및 난곡로 정비

1) 난곡교 신축 및 확장사업

① 공사기간 : 2013년 5월 ~ 2014년 4월

② 신축규모 : 폭 11m, 길이 27m 합성형 라멘교

③ 사업예산 : 26억원

2) 난곡로 확장 및 포장사업

① 공사기간 : 2014년 3월 ~

② 공사규모 : 폭 8m, 높이 1m 부분 성토

③ 사업예산 : 30억원

II. 장학사업 (2014년 장학의 해)

1. 장학재단 현황

1) 설립 : 1999년 10월 – 최초 장학기금 3억원



사진 위 : 신년모임이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중진고문 및 편찬팀 회장단

사진 아래 : 갑수중앙회장이 중진고문 및 편찬팀 회장단 신년 모임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III. 인터넷대동족보 구축사업 (한글 한자 병기)

1. 단계별 사업추진

1) 1차 사업

① 사업기간 : 2004년 5월 ~ 2009년 2월 (4년 10개월)

② 수단 접수 인원 : 약 2만 7,000명

③ ~20세까지 일괄 입력 완료

2) 2차 사업

① 사업기간 : 2009년 3월 ~ 2010년 8월 (1년 6개월)

② 수단 접수 인원 : 약 2만 6,000명

③ ~26세까지 일괄 입력 완료

3) 3차 사업

① 사업기간 : 2012년 6월 ~ 2012년 12월 (7개월)

2013년도 보정작업기간 중 수단 접수

② 수단 접수 인원 : 약 6만명

『1차~3차 합계 : 11만 3,000명』

4) 입보 인원 총수 : 약 71만 2,000명

〈국내 280여 성씨 중 규모·기능·디자인면에서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평가되고 있음〉

2. 향후 계획

1) 인터넷족보 구축 및 개통 (3차 사업)

2) 모바일족보구축 및 개통

3) 제7교 대동족보 보책 발간 검토

4월 4일은 기성전 제향일

箕子 影幀 모신 祠堂

기자조선(箕子朝鮮)을 건국한 문성대왕(文聖大王)을 추모하는 2014년도 제향이 오는 4월 4일(음력 3월 5일)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소재 기성전(箕聖殿)에서 기성회(箕聖會·회장 枫

泰) 주관하에 봉행된다. 기성전은 기자(箕子)의 영정(影幀)을 모신 사당(祠堂)으로 증평군 향토문화 유적 제2호로 지정되어 있다.

3월 31일~4월 2일 삼재 시향일

東錫회장, “많은 참석 바랍니다”

추·모·봉(追·慕·鳳) 삼재(三齋) 관리위원회(회장 東錫)는 오는 3월 31일(음력 3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전남 영광에 있는 삼재에서 봉행되는 시향에 전국의 일가들이 가족동반으로 많이 참석해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삼재조(三齋祖)에 대한 시향은, 첫날인 음력 3월 1일에는 6세조 예빈경부군

(禮賓卿府君)의 추원재(追遠齋·영광군 법성면 신장리)에서, 둘째 날인 음력 3월 2일에는 7세조 문혜공부군(文惠公府君·영광군 묘량면 덕흥리)의 모원재(慕遠齋)에서, 셋째 날인 음력 3월 3일에는 8세조 제학공부군(提學公府君·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의 봉강재(鳳崗齋)에서 각각 잇달아 봉행된다.

한인산악회 갑오년 시산제

강화도 마니산 함허동천에서



인천광역시종친회 산하 한인장학회(회장 相振) 회원 48명은 지난 2월 11일 강화도 마니산(摩尼山·472m) 첨성단에서의 산신제(山神祭)에 이어 함허동천(涵虛洞天) 계곡에서 지난 한해의 무사고 산행에 감사하고 갑오년 새해의 안전한 산행을 기원하는 시신제(始山祭)를 올렸다.

시신제가 끝난 후 일행은 계곡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노래자랑으로 산행의 피로를 풀었다. 노래자랑에서는 錫仙일가가 1등, 최종이씨가 2등, 재국일가가 3등, 정희순씨가 4등, 정희일가가 5등을 각각 차지했으며, 김인수, 김종만씨에게는 개근상이 시상되었다.

었다.

마니산은 강화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산정(山頂)에는 단군(檀君) 왕검(王儉)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마련했다는 첨성단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오늘날에도 개천절에 제례를 올리고 전국체전대회의 성화(聖火)가 채화되는 곳이기도 하다.

마니산 서쪽 기슭에 펼쳐져 있는 함허동천은 조선 전기의 승려 기화(己和)가 마니산 정수사(精修寺)를 증수하고 이곳에서 수도했다고 해서 그의 당호(堂號)인 함허(涵虛)를 따서 ‘함허동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청주한씨보」는 한씨 일가들의 갖가지 정보를 전하는 소식지입니다. 따라서 많은 정보가 게재될수록 유익한 좋은 소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종파와 각 지역 종친회의 행사, 임원 교체 등 인사동정, 한씨에 얹힌 정보, 일가들의 선행과 효행 등에 관한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기사에는 관련 인사들의 이름, 행사일과 장소, 행사내용 및 동정(動靜)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관련 사진도 함께 행사가 끝나는 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보 편집실〉

무강왕 · 왕비 춘향대제 봉행

4월 14일 ‘익산쌍릉’에서 거행

무강왕(武康王)과 무강왕비의 2014년 갑오년(甲午年) 춘향대제가 오는 4월 14일(음력 3월 15일) 오전 전북 익산시 팔봉면 석왕동 57 소재 ‘익산쌍릉’(益山雙陵)에서 봉행된다. 중앙종친회와 현지의 팔봉종친회에서는 일가들의 많은 참석을 요망하고 있다.

무강왕은 기자조선(箕子朝鮮)의 마지막 왕인 41세 애왕(哀王)이자 삼한(三韓) 중 하나인 마한국(馬韓國)을 세운

태조(太祖)이며, 마한 말년의 8세 원왕(元王)의 둘째 아들 우량(友諒)이 상당(上黨한씨(청주한씨)가 되므로써 청주한씨의 선조가 된다.

따라서 청주한씨는 왕족의 후예로 자타가 공인하는 삼한갑족(三韓甲族)이며 명문중의 명문이다. 원왕의 장남 우평(友平)은 북원(北原) 선우(鮮于)씨가 되고 3남 우성(友誠)은 덕양(德陽) 기씨(奇氏)가 되었다.

청한산악회 2월 정기산행

23일 서울 인근 수락산으로



청한산악회의 2월 정기산행은 서울 인근에 소재한 수락산(638m)으로 다녀왔다.

도봉산, 북한산과 마주보고 있으며 서울시와 의정부, 남양주의 경계를 이루는 수락산은 교통이 편리하고 잘 관리된 등산로와 산자락 여가저기를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바위의 멋진 풍광으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곳인자라 당일 아침 제법 쌀쌀한 날씨임에도 등산로 입구부터 많은 인파로 붐비고 있었다. 노원 소방서를 기점으로 산을 오르니 등산로는 대체적으로 무난한 가운데 산 중턱에 오르자 상계동일대 경관이 한눈에 들어오고 암석과 수목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모습에서 계절에 상관없이 나름대로의 특색을 보여주는 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과 더불어 서울근교 4대 명산이자 서울의 수호산이라 불리듯 등산로 조입에는 안전산행을 기원하며 시산제를 행하는 산악회원들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띠었다. 하산 후 식사자리에서는 3월 시산제를 겸한 정기산행 부터는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산악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는 건배사와 함께 담소를 나누며 산행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중앙회 鍾仁상무)

중앙종친회 계좌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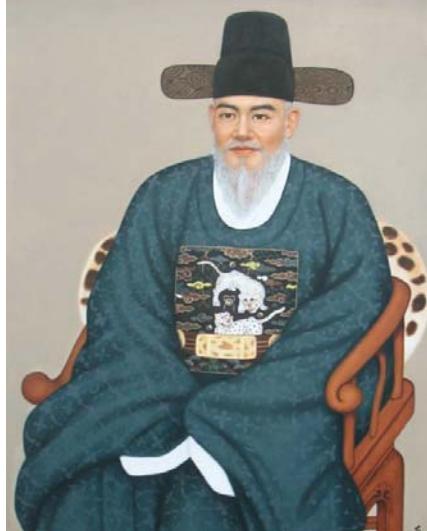
-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41 (회비, 헌성금, 종보비)
-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54 (족보 수단금)
- ◆ (재)청한장학회 국민은행 009-25-0015-377 (장학기금)

시조탄생지 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 계좌번호

◆ 국민은행: 352202-04-033585 / 예금주: 한양명

兵使公 韓範錫장군에 관한 학술대회

5월 23일 경상대학교 남명학관에서



병사공 한범석장군의 영정



병사공 한범석장군의 재실 전경-앞뜰 왼쪽에 신도비. 오른쪽에 기마상이 세워져 있다.

병사공 한범석(兵使公 韓範錫 · 1672~1743) 장군에 관한 학술대회가 오는 5월 23일 오전 10시 경남 진주시 소재 국립 경상대학교 남명학관 남명홀에서 「병사공 한범석의 생애와 활동」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경상대학교 연구소에는 병사공에 관해 조선 후기 무인으로 가는 곳마다 혁혁한 공을 세워 가선대부(嘉善大夫), 칠도병마수군절도사(七道兵馬水軍節度使), 용호대장, 수어청장관, 금군별장

(禁軍別將), 금위영중군, 금영중관, 본영중군, 이중군, 8번의 부사(府使), 삼도통여사(三道統禦使),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 부총관, 재신(宰臣)을 지내고 60여장의 교지(敎旨)와 유형문화재 155점이 있지만 그의 생애와 공적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집중적으로 탐구하여 병사공의 활약상을 일반에게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연구소측은 밝히고 있다.

학술대회에서의 연구발표에는 ▲경상대학교 허권수박사 ▲한국학중앙연구원 김학수실장 ▲서울대학교 김시덕 교수 ▲경상대학교 남명연구소장 윤효진박사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원장 박병련박사 ▲건국대학교 신병주교수 등 석학들이 참여한다.

한편 문정공파 병사공종중(회장 汀愚)에서는 지난 2010년 2월 한범석과 관련한 고문서 1,000여점을 경상대학교에 기증(영구 위탁)한 바 있다. 병자

호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조은 한봉삼(韓夢參 · 1589~1662)의 증손인 한범석은 1672년 진주 평거동에서 태어나 1695년 무과에 급제한 후 여러 벼슬을 거쳤으며, 1728년에는 이인좌의 난(亂)을 평정한 후에는 함경도 · 경상우도 · 황해도 병마절도사 등을 두루 역임했다. (문정공파 병사공종중 汀愚회장 송고)

세마공종중 신임회장에 仁源일가 정기총회에서, 예산안 · 결산안도 채택



세마공(洗馬公) 종중(文靖公派 判官公下)은 지난 2월 23일 오전 11시 대전시 중구 풍전삼계탕 식당에서 50여명

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連東회장의 후임으로 仁源(사진)회장을 새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連東회장의 개회사와 孝東의 격려사에 이어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하고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도 가결했다.

仁源신임 회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종인들의 화합과 우리 종회의 단합을 최우선으로 더욱 발전하는 종회를 만들도록 이끌겠다”고 다짐하고 “종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정회 제10회 정기모임 부회장 제도 신설…회칙 개정

서원군파 회원들의 친목모임인 서정회(西情會 · 회장 吉洙) 지난 3월 12일 정오 서울 종로구 관수동 은행나무집에서 18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정기모임을 갖고 회원들 간의 친목을 다지는 한편 서정회의 활성화를 위해 회칙을 개정, 부회장 제도를 두기로 결의했다.

제5대회장에 용구회장 재선



사진설명: 왼쪽부터 경인 신임사무국장, 용구 5대회장, 봉철 전임사무국장

전남 진도군종친회(회장 용구)는 지난 2월 7일 개최된 제11차 정기총회에서 제5대 회장에 용구 현회장을 선출, 연임하도록 했으며, 신임 사무국장에 경인일가를 선임했다.

용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격려와 노고를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병임, 금옥, 현일, 후교 고문, 철진, 병

영 감사, 인철 명예회장, 사무국장, 각 지역구부회장들과 운영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하고 “제5대 회장 재임 중에는 과거에 부족했던 점들을 꼼꼼히 찾아서 우리 진도군종친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종친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청양군종친회, 이사회 · 정기총회 개최

충남 청양군종친회(회장 선희)는 지난 3월 24일 오전 2014년도 신년교례회를 겸한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2013년도 주요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봉수고문을 비롯한 26명의 이사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201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계획으로 ①총회 개최 ②청장년 회원 확보 ③시조 시향 단체 참석 ④종보비의 자발적인 부담 ⑤인터넷족보 찾아보기 교육 등을

채택했다.

선희회장은 회의 벽두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우리 일가들이 종친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활성화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많다”고 회고하고 “2014년에는 종친회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종회 개최를 통한 관심 집중과 청장년 회원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중앙종친회 종사에도 적극 협력하여 모범적인 종회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개인종보비 (1~2월)

단위 : 천원

이 름	금 액
강식(서울 성동구)	100
동식(경북 경주시)	100
요육(서울 마포구)	100
윤희(울산 중구)	100
태성(경기 고양시)	100
훈재(강원 춘천시)	100
광수(경기 수원시)	50
규협(대전 중구)	50
기성(경기 군포시)	50
두만(경북 안동시)	50
만택(서울 강남구)	50
상민(충남 천안시)	50
세희(서울 관악구)	50
인규(부산 부산진구)	50
잔수(서울 용산구)	50
태진 이사(경북 구미시)	50
황우(경기 고양시)	50
의성(경기 화성시)	40
김동 이사(충북 충주시)	30
규상(인천 계양구)	30
규성(경기 김포시)	30
가석(서울 강동구)	30
기수(강원 춘천시)	30
기호(서울 성북구)	30
도수(충남 청양군)	30
두경(전남 나주시)	30
봉주	30
상곤(경북 구미시)	30
상복(경기 안성시)	30
상욱(서울 송파구)	30
상원(서울 노원구)	30
상준(경기 군포시)	30
상호 이사(충남 부여군)	30
상훈(서울 서초구)	30
석구(경남 밀양시)	30
성교(충북 음성군)	30
영전(대전 중구)	30
우영(서울 마포구)	30
윤교(경북 포항시)	30
의백(전남 순천시)	30
안수(서울 강북구)	30
일웅(경기 남양주시)	30
재관(서울 성동구)	30
정식(서울 동작구)	30
정웅(서울 송파구)	30
정준(서울 은평구)	30
창우(서울 송파구)	30
평전(경기 수원시)	30
경남(부산 서구)	20
경석(강원 양양군)	20
공희(경기 용인시)	20
관영(서울 강남구)	20
광열(충남 보령시)	20
광우(대전 서구)	20
구희(경기 성남시)	20
규덕(경기 부천시)	20
규천(경기 평택시)	20
기호(서울 도봉구)	20
기황 자문위원(서울 영등포구)	20
덕근(경남 거제시)	20
덕수(서울 금천구)	20
도영 이사(인천 중구)	20
동명 이사(서울 영등포구)	20
동완 부회장(첨판공파회장)	20
두원(경기 시흥시)	20
만수(경북 영천시)	20
만홍(서울 노원구)	20
명희(광주 서구)	20
병덕(경기 화성시)	20
병진(전북 남원시)	20
병호(경기 화성시)	20
봉호(부산 동래구)	20
상구	20
상남 운영위원(강북도봉구회장)	20
상락 이사(서울 동작구)	20
상룡(충남 천안시)	20
상범(경기 용인시)	20
상분(인천 계양구)	20
상수(충남 서산시)	20
상욱(충남 청양군)	20
상원(경기 광명시)	20
상익 부회장(문열공파회장)	20
상일 이사(서울 노원구)	20
상정 대구 남구	20
상준(서울 영등포구)	20
상철(경기 수원시)	20
상철(경기 양주시)	20
상태(서울 도봉구)	20
상태(서울 은평구)	20
상훈(경기 성남시)	20
석홍(서울 은평구)	20
선우(인천 계양구)	20
성용(서울 동대문구)	20
순(서울 성동구)	20
순철(서울 강동구)	20
승구(경기 성남시)	20
애삼(서울 서초구)	20
영성(충북 청주시)	20
영태(경남 밀양시)	20
운석(충남 서천군)	20
운열(경기 의왕시)	20
유식(경기 김포시)	20
인우(충남 당진시)	20
장수(경기 고양시)	20
장호(전북 무주군)	20
재수(경기 광명시)	20
재식(경남 함양군)	20
재현(충북 충주시)	20
재훈(경북 문경시)	20
정도(경북 영덕군)	20
정동(경북 구미시)	20
정서(서울 강북구)	20
정석(서울 금천구)	20
정수(광주 동구)	20
정수(서울 광진구)	20
종대(경기 하남시)	20

이 름	금 액
주용(경남 창원시)	20
준기(충남 천안시)	20
준석(경기 양주시)	20
준수(경기 양주시)	20
창근(경기 의정부시)	20
철수 운영위원(관악구회장)	20
철수(서울 도봉구)	20
철우 자문위원(경기 포천시)	20
청광(서울 금천구)	20
춘연(서울 광진구)	20
춘태(충북 증평군)	20
쾌설(경남 진주시)	20

이 름	금 액
현기(전북 전주시)	20
희철(경기 하남시)	20
공필(서울 동작구)	10
명석(서울 금천구)	10
봉희(서울 광진구)	10
원섭(서울 영등포구)	10
재규(서울 용산구)	10
홍석(경남 합천군)	10
순택(서울 중랑구)	5
태수(서울 관악구)	3

합 계 3,798

운영회비 (1~2월)

단위 : 천원

이 름	금 액
양명 상임고문	3,000
상오 자문위원(서울 성북구)	1,000
철수 부회장(문간공파회장)	1,000
택수 부회장(첨정공파회장)	1,000
영교 부회장(전북도회장)	500
길수 부회장(서원군파회장)	300
만우 자문위원(울산 남구)	200
기연 운영위원(전북 전주시)	200
상남 운영위원(강북도봉구회장)	200
성수 운영위원(경주시회장)	200
철수 운영위원(관악구회장)	200
철우 자문위원(경기 포천시)	200
태수 운영위원(경남 합천군)	200
기조 이사(전남 나주시)	200
건동 이사(강원 춘천시)	100
경완 이사(경북 경주시)	100
귀성 이사(전북 전주시)	100
기성 이사(서울 종로구)	100
기운 이사(경기 종친회 이사)	100
기호 이사(충북 충주시)	100
도영 이사(인천 중구)	100
동명 이사(서울 영등포구)	100
삼랑 이사(서울 관악구)	100
상모 이사(충남 천안시)	100
상분 이사(경기 수원시)	100
상억 이사(서울 영등포구)	100
상일 이사(서울 노원구)	100
상호 이사(경기 연천군)	100
상회 이사(대전 중구)	100
성규 이사(경기 광주시)	100
연종 이사(전북 군산시)	100
영채 이사(경기 안산시)	100
윤수 이사(서울 송파구)	100
정명 이사(경북 경주시)	100
종언 이사(서울 종로구)	100
태진 이사(경북 구미시)	100
현모 이사(전북 전주시)	100
화교 이사(경기 부천시)	100

장학기금납부 내역 (1~2월)

단위 : 천원

교유번호	이 름	금 액	누 계
1936	판관공단우정학회	20,000	90,000
106	청파공단우정학회	3,450	37,000
1404	갑수(대전종친회)	450	1,730
258	철수(서울 관악구)	100	2,800
118	태진(경북 구미시)	100	1,800
463	요육(서울 마포구)	100	1,650
700	동식(경북 경주시)	100	400
1984	강식(서울 성동구)	100	200
884	정수(광주 동구)	90	400
460	종대(경기 하남시)	50	750
1688	인규(부산 부산진구)	50	550
271	재훈(경북 문경시)	50	240
619	만택(서울 강남구)	50	200
1957	세희(서울 관악구)	50	100
1980	상민(충남 천안시)	50	70
1978	동록(대전종친회)	50	50
1993	정세(서울 강북구)	30	30
1963	규덕(경기 부천시)	20	50
1730	선우(경원 강릉시)	10	350
457	재규(서울 용산구)	10	310
453	원섭(서울 영등포구)	10	230
1760	봉희(서울 광진구)	10	190
1763	봉호(부산 동래구)	10	100
474	태수(서울 관악구)	2	185

합 계 24,942

단체종보비 (1~2월)

단위 : 천원

이 름	금 액
군산시종친회	200
부산영도구종친회	200
전북도종친회(영교)	200

합 계 600

이 름	금 액

<tbl_r cells="2" ix="3"

서울시종친회 정기총회 이어 임시총회

2014년도 예산안 · 2013년도 결산안 채택

서울특별시종친회(회장 駿錫)는 지난 해 12월 17일 오전 11시 용산구 소재 ‘용사의 집’ 2층 강당에서 2013년도 제2차 정기총회를 열고 ①매년 4월의 정기총회를 매년 12월 중에 개최토록 변경하는 규약 개정의 건 ②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한 후 종친회 발전을 위한 사안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어 지난 3월 1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5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기황, 상락감사의 감사보고를 받은 다음 2013년도 수입지출결산(안)을 승인했다.

정기총회에서 駿錫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정기총회에 참석한 분들에게는 감사를 드립니다만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더 많은 임원들과 일가들이 참석했어야 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하고 “종친회 사업은 송조돈목(崇祖敦睦)의 정신을 가지고 적

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며 특히 오늘 총회에 멀리 전남 영광에서 東錫삼재관리위원회 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甲洙중앙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서울시종친회는 국내 17개 광역시·도종친회 중 가장 중추적인 위치에 있는 종친회로서 많은 일가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정기총회에는 예상보다 저조한 참석율을 보여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하고 “우리 청주한씨는 전국의 280여 성씨 중 10번째의 대성으로 15개 대성(大姓) 모임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특히 서울시종친회는 청주한문의 중추적인 위치에 있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종친회 중 가장 앞서가는 활성화된 종친회로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대구·경북종친회 신년교례회

덕담 주고 받으며 힘찬 출발 다짐



대구·경북종친회(회장 燉燮)는 지난 2월 8일 오전 11시 대구시내 파동소재 청한회관에서 100여명의 임원들과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갑오년 신년교례회를 갖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덕담을 주고 받으며 새해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신년교례회는 참석한 임원들과 일가들이 서로 새해인사를 나눈 다음 식전행사로 초청국악인 3인의 40분간에 걸친 노래와 춤으로 분위기를 돋웠다.

燉燮회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모든

일가들께서는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하고 “올 한해도 종친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영고문의 격려사, 태략이사의 풍수지리학박사 학위 취득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 3월 중순경에 개최할 회장단회의와 5월 정기총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다짐하는 한편 종친회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불우이웃돕기로 보람된 일을 하기로 결의했다.

대구·경북종친회 차기회장에 한의길일가

현 燉燮회장은 오는 4월 말 임기 만료

대구·경북종친회(회장 燉燮)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1시 청한회관에서 25명이 참석한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회장단 임원회의를 열고 오는 5월부터 임기(2년)가 개시되는 차기회장에 한의길 현 수석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한편 부회장, 감사, 이사 등 여타 임원들은 전원 유임시키기로 결

의했다. 오는 4월 말 임기가 끝나는 燉燮 현 회장은 지난 6년간 2년 임기를 3번 연임하면서 대구·경북종친회 발전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燉燮회장이 6년동안 회장의 소임을 마무리하고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더 발전하는 종친회를 만들어 가는데 마음과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三齋관리위, 2014년도 정기총회 개최

2014년도 예산(안) · 2013년도 결산(안) 채택



주모봉 三齋관리위원회(회장 東錫)는 지난 3월 8일 오전 11시 전남 영광군 영암읍 소재 三齋회관에서 53명의 임원들과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일반회계와 2개 특별회계의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승인한데 이어 ‘三齋회관관리규약’과 ‘6세조 예빈경부군 유하지 복원사업관리규약’을 제정하는 한편 봉강재(8세 제학공부군) 재실앞 파평윤씨종중 소유 토지(畠) 200여평을 8,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매수하기로 의결했다.

東錫회장은 承周종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전국의 모든 일가들의 성원으로 三齋의 발전과 더불어 굳건한 종사운영에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올 갑오

년에는 산소 수호와 모원재의 주차장 기반시설 등 숙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希天상임고문은 격려사를 통해 “영 혔하신 6세조 예빈경부군의 위업을 받아 후손들이 변창하고 있으며, 三齋는 회관 마련에 이어 예빈경부군의 유허비 복원사업이 태동을 시작하여 몇 년 후에는 훌륭한 유허지로 면모를 갖출 수 있게되어 기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하고 “우리 다 같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相太상임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三齋의 발전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일가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기자조선왕조와 무강왕의 후예인 우리 청주한문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애족정신이 투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東錫회장 기고)

서원군파 종회 회장단회의 개최

吉洙회장, “인터넷족보 수단 신청 서둘러달라”

서원군파 종회(회장 吉洙)는 지난 1월 21일 오전 11시 종로구 관수동 은행나무집에서 16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회의를 열고 상무이사에 相一, 상무보에 大熙, 이사에 相根(충정공파), 德洙(장도공파), 相熙(양절공파), 聰台(감사공파), 永鶴(양절공파), 聖奎(충정공파), 相愼(첨정공파), 元敎(장도공파), 庚燮(양혜공파), 良洙(칠경공파), 戊熙(감사공파), 濟洙(칠경공파), 相確(장간공파), 二惠(장도공파), 致鏞(양혜공파), 今順일가 등 18명의 이사진을 선출했다.

또한 기능별로 업무를 분장(分掌)하여 ▲종친회 명칭과 소유권 변경위원회 ▲기금조성위원회 ▲서원사(西原祠) 관리위원회 ▲서원사 제전위원회 ▲7교대동보 중 서원군파 고정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吉洙회장은 회의 벽두 인사말을 통해 “아직까지도 인터넷족보에 입보하지 않은 종파에서는 서둘러 2월 말까지는 마쳐주기 바란다”고 독려하고 “앞으로 해쳐 나갈 일이 많이 쌓여 있으나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인천시종친회, 구·군 회장단회의 개최



인천광역시종친회(회장 昌燮)는 올 해부터 매월 구·군종친회 회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매 분기마다 전체 임원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 1월 21일(화) 종친회 사무실에서 올해 첫 번째 구·군종친회 회장단 연석회의를 갖고 종친회의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구·군종친회간의 유대 및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韓亨祚 교수, 제4회 민세상 학술연구부문 수상

“유학이 개인의 책임·자유 개념까지 포함해서 발전하도록 연구하겠다”



한국학중앙연구원 韩亨祚(54·사진) 교수는 지난 해 11월 29일 오후 서울시 종로 태평로 프레스센터 내셔널클럽에서 거행된 제4회 민세상(民世賞) 시상식에서 학술연구부문의 업적이 평가되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민세상은 엄혹한 일제 강점기와 광복 이후 정국에서 ‘열린 민족주의’를 주창했던 民世安재홍(安在鴻·1891~1965) 선생의 삶과 사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다.

亨祚가는 수상 소감에서 “民世(安在鴻 선생)가 강조한 실학(實學)은 그

이씨조선 태조 李成桂와 無學 사이에 오간 농담

태조 이성계(李成桂)와 왕사(王師) 무학(無學)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딱딱한 신하들과의 격식과 공식사무에 지루해 하던 절대권력자 이성계가 친구인 무학대사(無學大師)에게 이를테면 ‘야자타임’(나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상대편을 높이지 않고 말하기로 서로 간에 미리 정해놓은 시간을 뜻함)을 제안했다.

“대사, 우리끼린데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오늘은 농이나 한번 합시다.”

“좋지요”

“누구부터 할까요?”

“전하(殿下)부터 하시지요.”

“그리지요. 그럼 나부터 시작합니다. 대사의 상판은 꼭 돼지처럼 생겼소이다.”

“그런가요? 전하의 용안은 부처님 같으십니다.”

농담을 하자는데, 무학이 정색으로 자신을 친양하자, 이성계는 눈살을 찌푸렸다.

“어허, 대사, 농담하는 시간이라니

시대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색이었다”면서 “儒學이 개인의 책임과 자유 같은 개념까지 포함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亨祚가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주희에서 정약용으로’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왜 동양철학인가’ ▲‘왜 조선 유학인가’ 등 다수이며, 금강경 해설서로 ▲‘붓다의 치명적 농담’ ▲‘허접한 꽃들의 축제’ 등 2권이 있다.

民世賞의 주인공인 民世 安在鴻선생은 20세기 민족사의 훈련기에 언론인, 사학자, 정치가로 민족운동에 혼신했으며 일제하에서는 조선일보 주필·부사장·사장, 좌우를 아우른 최대 민족운동 단체인 신간회(新幹會) 총무간사, 광복 후에는 미군정 민정장관과 제2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민족 통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6·25전쟁 때 납북되었다.

亨祚가는 수상 소감에서 “民世(安在鴻 선생)가 강조한 실학(實學)은 그

깐.”

“전하,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옵니다.”

이성계는 이 한방에 깔깔 웃고 밟았다고 한다. 이것은 그러나 농담이 아니고, 인간의 근본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 진담 중의 진담이다. 역시 우리가 보는 세상은 자기의 그림자일 뿐이다.

만해(萬海) 韓龍雲은 「님의 침묵」 서문에서 이렇게 읊었다.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우리가 보는 세계는 내 안의 욕망과 관심이 투영(project)된 ‘이미지(相)’일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

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데 있다. 늘 그

놈의 ‘무지’가 탈이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가 보는 세상이 객관적이라고 착각하며 산다. 그래서 언제나 “너는 틀렸고 내가 옳다”고 우긴다.

〈韓亨祚교수의 반야심경 해설 중에서〉

1년에 2만원만 보내 주시면 ‘종보’는 독립채산이 됩니다

종보(宗報)를 받아보시는 일가 여러분 종보 구독료가 1년에 2만원입니다. 구독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보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앙종친회 운영에 참여하고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1년에 2만원만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청주한씨보’는 우리 100만 일가들의 소식지로, 화합의 마당으로, 한문의 역사를 기록하는, 모든 일가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하고도 유익한 매체(媒體)입니다만 적자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종보’를 구독하시는 일가분들이 ‘종보는 받아보시면서 종보비를 보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에 단 한번 2만원만 보내주시면 ‘종보’는 중앙종친회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채산으로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한영록일가, 강진경찰서장 영전

“종종 어른들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 바란다”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영록일가는 참의공 남원종종 대표인 종태일가의 1남 3녀 중 장남으로 일찌 이 전 가족이 서울로 이거하여 양정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간부 후보 41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경찰청 인사팀장, 일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영록일가는 “앞으로 시조부군 위양공 묘소와 난곡리 청한각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산재해 계신 일가님들과 묘소 및 유물을 살펴 무엇을 드고 무엇을 배워 나갈 것인가를 결정해 처리할 생각”이라고 애종돈목을 다짐하면서 “종종 어른들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韓孝周일가, 제34회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

해마다 몇개씩 영화상을 수상해 장래 촉망되는 유망주



사이에 1남1녀 중 첫째 딸로 태어난 孝周일가는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한 후 연예계에 데뷔하여 2006년 제26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신인여우상을 시작으로 제20회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2007년), SBS 연기대상 뉴스타상(2008년), SBS연기대상 특별기획부문 여자연기상(2009년), MBC연기대상 대상(2010년), CETV아시아 10대 인기스타 시상식 한류스타상(2012년)을 수상하는 등 해마다 몇 개씩의 영화상을 수상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유망주로 기대를 모아왔다.

孝周일가는 여우주연상 수상 인사말에서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부족한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아 마음이 무겁고 무섭다”고 겸손함을 보였다.

일부 언론들은 “30·40대 여배우들에 비해 20대 여배우가 ‘기근현상’을 빚고 있는 요즘 韩孝周의 여우주연상 수상은 더욱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한예지일가, 한의사 국가시험 수석합격

경남 남해 출신 한일민일가의 막내 딸



만점인 420점에 가까운 394점을 취득, 수석합격의 영예를 차지했다.

남해읍 남신마을 출신인 아버지 일민(산청군 경호고교 교사)일가와 어머니 백영미 부부의 1남1녀 중 막내로, 현재 경희의료원에서 인턴과정을 밟고 있는 예지일가는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신 만큼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한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부모님은 물론 많은 도움을 준 교수님과 선후배 동기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남해군종친회 재성회장을 비롯 봉기·호식부회장, 진균총무, 창옥이사 등 임원들은 공동명의로 축하문을 중앙종친회에 보내왔다.

경남 남해 출신으로 동국대학교 한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한예지(25·사진) 일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한 제69회 한의사 국가시험에